울산, 지역건설 살리기 성과… 하도급 2조2158억 '역대 최대'

지역업체 지원 강화로 하도급률 35%
공공기관·대형사 협약늘려 참여 확대
만남의 날 297건 상담 협력사 등록
44개 현장 점검으로 불공정 관행개선

울산시가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 건설업체 지원에 나선 결과 지난해 하도급률 35% 목표를 달성했다.

시는 2025년 지역 건설 공사 하도급 금액이 전년 대비 7019억원 증가한 2조 21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지난해 1월 '지역 건설 산업 하도급률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했다. 지역 민간 공사 참여 확대,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 건설 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0개 실천 과제를 추진해왔다.

우선 지역 건설사의 민간 공사 참여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한국석유공사 등 9개 공공기관, 삼성물산 등 14개 대형 건설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현대건설 등 13개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 영업도 펼쳤다.

울산시청. /울산시

민·관 협력으로 90개 건설 현장을 찾아 지역 업체의 하도급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대형 건설사에 협력업체 등록 확대와 등록 기준 완화를 지속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개최한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297건의 매칭 상담이 이뤄졌다. 26개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7개 현장, 하도급 계약금액 476억원에 대해 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썼다. 공동주택 등 민간 건설 공사 44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법령 위반 사항은 등록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안전 진단과 기업 신용 평가 지원을 강화했다.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돕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건설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열어 건설산업기본법 해설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시는 2026년 정부 SOC 예산 축소,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대형 프로젝트 종료 등으로 지역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2026년 지역 하도급률 37%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분야별 실천 과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신규 과제 2개를 도입했다. 총 22개 세부 실천 과제로 확대·개편해 지역 하도급률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건설 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metroseoul.co.kr

서부산 첫 '클래식홀' 문 열었다

부산시 '낙동아트센터' 개관
987석 콘서트홀·292석 앙상블극장

부산시는 10일 오후 5시 서부산권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낙동아트센터' 개관 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낙동아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87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292석의 다목적 공연장인 앙상블극장으로 구성됐다. 개관 전부터 클래식 협연, 오페라, 합창, 실내악, 성악 등 다양한 시험 공연이 잇달아 매진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날 콘서트홀에서 열린 개관 공연에는 예술 분야 주요 인사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예술인들의 축하 영상으로 시작하는 이번 공연은 1부 창작 교향곡, 2부 말러 8번 교향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작곡가가 낙동강의 역사와 생명을 주제로 작곡한 창작 교향곡 '낙동강 팡파레'가 초연되며 비수도권에서 처음 연주되는 말러 교향곡 8번은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와 부산·김해·창원 등 낙동강 유역 예술가 330여명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1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는 개관 페스티벌에서는 총 20개 작품, 27회 공연이 펼쳐진다. 자체 제작 오페라 '아이다'를 비롯해 독일 쾰른(WDR) 방송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킹스싱어즈의 내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또 부산 지역 예술 전공 고등학생, 대학생과 NAFO의 협연인 '미래 세대 클래식 협연 콘서트' 등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연들이 마련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 캠페인 모습. /경상남도

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109억 모금

도·시군 합산 전년보다 43% 증가

경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금을 모았다. 경남도는 2025년 도와 시군을 합쳐 총 109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76억원과 비교해 43% 늘어난 금액이며, 전체 기부 건수는 8만 8336건으로 집계됐다.

도 본청의 경우 목표액 1억 5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2억 500만원을 달성하며 목표 대비 137%를 기록했다. 지난해 1억 3900만원보다 약 48% 늘어난 수치다.

기부자 연령별 분석 결과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가 뒤를 이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직장인층이 기부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연중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진해 군항제, 제106회 부산 전국체전, 울산 고향사랑 박람회 등 주요 행사장에서 도·시군 합동 홍보 부스를 설치해 제도를 알렸다. LG전자, 삼양식품, 우주항공청, 성우하이텍, 대흥알앤티 등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도와 시군이 함께 찾아가 직장인 중심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냈다.

/경남=손병호 기자

경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 시동

강원도·시군과 발전계획 수립 착수

경북도가 강원도, 시·군 등과 함께 '중부내륙연계 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경북지역 발전을 위해선 경북연구원이 2024년 10월 계획 용역에 들어가 최근 '초광역 상생발전의 교두보, 경북 백두대간권'이라는 비전으로 4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 가운데 '지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서는 ▲김천~전주 간 동서횡단철도 건설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됐다. '생태자원의 친환경 활용과 산림휴양복지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국립 농생명치유복합시설 조성(상주) ▲백두대간 남산 힐링정원 조성사업(예천)이 들어갔다.

'역사 문화 관광진흥 전략'으로는 ▲백두대간 부항댐 체류형 관광지 조성(김천) ▲국가 e-스포츠 도시 조성 사업(예천)이 추진된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반 구축' 전략으로는 ▲2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상주) ▲경북 소재·부품·장비 특화 육성(영주) 등이 포함됐다.

이들 4개 추진 전략에는 모두 52개 세부 전략이 발굴됐다.

4대분야 전략 외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연계 사업으로는 ▲중부내륙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 ▲3도 접경 마구령터널 주변 지역 연계협력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울진군, 봄철 산불대비 대응체계 대폭 강화

진화헬기 상시대기 체계 구축

울진군이 건조한 기후 속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앞두고 산불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진화헬기 신규 배치와 담수지 정비를 통해 조기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군은 2026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산불 진화헬기 신규 배치를 비롯해 진화용 담수지 점검과 제빙 작업을 마무리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올해 1월부터 투입되는 진화헬기는 독일 BO-105S 기종으로, 최대 담수량은 1,000L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운용되던 헬기(730L)에 비해 37% 향상된 수치로, 산불 발생 시 더 넓은 지역에 신속한 물살포가 가능해졌다.

진화헬기에는 조종사, 정비사, 급유사 등 3명이 팀을 이뤄 배치되며, 봄철 산불 위험 기간 중 항시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출동과 진화까지의 반응 속도를 최소화해 산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산불 진화용 용수 확보를 위한 담수지 12개소도 점검을 마쳤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설맞이 누비전 600억 발행

창원시가 설 명절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600억원 어치를 내놓는다. 창원시는 모바일 470억원, 지류 130억원 규모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설 발행액 200억원과 비교하면 3배 늘어난 규모다. 할인율은 10%로 정부가 의무화한 9%보다 높게 책정됐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모바일과 지류 각각 30만원으로, 최대 한도 구매 시 총 6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주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경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월 4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상담 제도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 사항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민원상담 제도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원 가운데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은 물론 각종 건의 사항과 법률 상담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영천시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신설

영천시는 경북도 최초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장수축하금' 제도를 신설하고, 90세 이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예우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보훈 정책의 상징성과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참전·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90세 이상이 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게 돼,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영천(경북)=김진수 기자 k0808862@

포항시
한옥 건립 최대 4000만원 지원

포항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과 친환경 주거 형태 확산을 위해 '2026년 한옥 건축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옥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품격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는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건축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